

새로운 교회에서 예배하는 새로운 교회

새로운 교회가 새로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지난 2달여 동안 너무나 편안하고 아름다운 장로님 댁에 예배를 드리며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여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 장소를 옮기게 되었다. 그런데 이전에 여러 교회들을 섬기며 예배를 드렸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르다. 처음으로 우리 예배당이 아닌 다른 교회 예배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이다. 조금 쑥스럽기도 하고 불편할 것에 대한 작은 걱정도 있지만 마음에 많은 기대가 생긴다. 실은 장소를 위하여 더 많은 기도를 하지는 않았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교회를 세우시니 당연히 장소를 주실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장소로 우리를 인도하시리라는 생각을 하지는 못했다. 나의 믿음이 연약한 탓이다.

지난주에 미리 와서 열쇠를 받고 우리 교회가 사용할 장소를 돌아보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도록 복을 주신다. 장소만이 아니라 이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의 마음이 얼마나 넓은지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다른 민족 교회가 와서 함께 예배 한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닌데 그들은 우리교회가 여기에 있음으로 한 지붕 밑에 두 교회가 생겼다고 기뻐한다. 만일 상황이 바뀌어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렇게 말하며 기뻐했을까? 생각해 본다. 나에게 창고와 사무실까지 사용하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할 수 없이(?) 주중에 교회에 나와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렇게 편리를 보아주는데 얼굴도 보이지 않으면 얼마나 서운할까? 생각이 되어서다. 하지만 그 생각은 곧 기도의 시간으로 연결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한 새로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하나님은 우리교회가 여기에 있음으로 성 앤드류 장로교회도 영적으로 더욱 뜨거운 교회가 되기를 원하실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장소를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복음을 마음껏 전하라는 것이다.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자들에게 성령의 위로와 생명의 소망을 전하라는 말씀일 것이다. 우리는 이 일에 생명을 걸고 열심을 다하여 교회를 이루어야 해야 한다. 사람들에게 받는 평판에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죽을 사람을 살리는 사역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도 우리를 살리기 위함같이 우리도 세상을 살리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겠다. 그 첫 걸음이 예배이고 사랑이다. 풍성한 은혜를 사모하는 예배가 되고 철철 넘치는 사랑을 주고받을 때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새로운 영혼들을 불러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4장 12절을 통하여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고 하신다. 이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이 세대 이 지역에 꼭 필요한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닌 “그 교회”가 되기 위하여 마음과 정성 그리고 헌신을 모두 쏟아 우리의 다음 세대와 그 다음까지 하나님을 잊지 않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꼬리가 길어지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자.